

# 2019광주세계수영 北 참여 성사되나

## 정부 합동업무보고 “남북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 광주시도 FINA측과 北 선수단 대회 참가 첫 논의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의 북한 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최근 광주시와 국제수영연맹(FINA) 측이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첫 논의하는 등 광주에서도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이 광주를 찾는다면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속으로’(DIVE INTO PEACE(평화의 물결속으로))의 의미가 현실화되는 성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향후 남북 문화·스포츠 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9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과 2019 동·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추가로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을 추진하고, 국내 대회에 북한팀을 초청하거나 종목별 교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민간·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본격화하고 종교·체육 등 대북제재 틀 내에서 다각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2030년 남북한·중국·일본 동북아 월드컵 공동 유치도 추진하고, 한중일 올림픽 조직위 간에 지식전수와 인력교류, 의식행사·문화교류 등도 강

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치러질 광주수영대회의 북한 참여도 더욱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북한관 부지를 마련하는 등 북한 참여를 추진했지만 무산됐었다.

광주시도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를 더욱 적극적

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시는 최근 광주를 찾은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 피터홀 마케팅TV 부장, 와킨푸을 시설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FINA 대표단과 북한의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북한 참여를 위한 FINA의 역할을 주문하자, FINA 코넬 사무총장은 “FINA 회원국인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100% 북한이 참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북한 선수단이 광주를

찾을 수 있는 대·내외적인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참가를 위한 준비를 더욱 체계화해 광주에서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차게 물살을 가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11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207개국 선수와 인원 등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선수권대회는 7월29일~8월11일 14일간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에서 열린 ‘중국 EV(전기차)100인 포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천칭타이 EV100인 포럼 이사장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칭화자동차포럼, ‘한·중자동차포럼’으로 격상

### 윤장현 시장-칭화대 협의

광주시와 중국 칭화대가 ‘광주·칭화자동차포럼’을 ‘한·중자동차포럼(가칭)’으로 격상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21일 “지난 1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EV(전기차)100포럼 참석차 북경을 방문 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20일 칭화대 자동차학과 양뎡거 학과장과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뎡거 학장은 지난해 사드정국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칭화자동차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평가하며, 앞으로 정부와 대학, 기업 등의 참여로 포럼의 위상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시장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중 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각오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칭화대는 중국의 정책 연구와 결정, 실행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전기자동차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자동차학과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과 과학자, 기업인, 외국 전문가 등이 전기차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나누고 소통하는 EV 100포럼 또한 칭화대 자동차학과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참여하고 있다.

윤 시장은 21일에는 EV100포럼 일정 중 하나인 ‘글로벌 전기자동차 발전과 정책 원탁회의’에 참석해 ‘광주의 e-mobility 기반 스마트 휴먼 시티 비전’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중흥2동 주민센터에서 한 사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제공>

## 광주시·전남도의원들 너도 나도 “기초단체장 출마”

### 시·도의원 절반 가량 6·13 지방선거 출마 준비

#### 예비후보 등록 맞물려 3, 4월 임시회 무더기 공석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소속 현역 의원들이 대규모로 6·13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이 지역 광역의회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빠른 출마 일정 탓에 의정에 불성실하거나 출마를 염두에 둔 ‘지역구 쟁기 행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마를 준비하

고 있는 광역 의원들의 수가 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22명의 시의원 중 구청장 출마예상자가 많게는 12명에 이른다.

민주당에서는 임택 의원이 동구청장, 김보현·김영남 의원이 서구청장, 김용집 의원이 남구청장, 김동찬·문상필·조오섭 의원이 북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심철의 의원이 서구청장 또는 서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박준수·유정심 의원이 남구청장, 이은방 의원(현 의장)이 북구청장, 이정현·김민중 의원이 광산구청장 출마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57명의 의원 중 목포 권욱(국민의당·이하 국), 여수 주연창(국), 순천 박동수(국), 나주 김옥기(국), 담양 박철홍(더불어민주당·이하 민)·전정철(국), 장성 운시석(민)·이준호(민), 곡성 조상래(국), 구례 이창호(민), 고흥 송형곤(민), 화순 민병홍(국), 강진 광영채(국), 완도 박현호(국), 해남 명현관(국), 진도 장일(국), 영암 김연일(민), 무안 정영덕(민), 영광 이동권(민), 신안 정연선(국)·임흥빈(민) 의원 등

21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중 절반 가량이 기초단체장을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 제대로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셈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시의원이 같은 지역구 시의원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 사퇴없이 5월 24일부터 후보등록이 가능하지만, 구청장에 도전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3월 2일, 늦어도 선출직 사퇴 시한인 3월 15일 안에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 출마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최근 의정활동보다는 자신의 선거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인구문제 극복 전남형 시책 발굴 나서

### 22개 시·군 프로젝트 공모

#### 5개 사업 선정 4억씩 지원

전남도가 심각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전남형 인구시책 발굴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전남의 인구 위기를 시·군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공동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22일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3월께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4억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는 ▲일자리·청년 ▲결혼·출산·여건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전남

도는 출산·인구 유입 등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전남 전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지역 특성 반영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5개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시행 후 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전남의 인구정책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모든 시·군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시·군 특성에 맞는 우수 시책을 발굴, 장기적으로 전남의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인구 시책을 계속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062-364-8800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